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3회)

##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 시대 제3부

차례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一. 감람나무
二. 감람나무란?
1)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
2) 붉은 배옷과 빛난 세마포옷

둘째 : 신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 라고 했다.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을 붉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주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가 있어 능히 하늘을 닿아 그 예언하는 날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리라."(묵 11:3-6)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고 또 하늘을 닿아 비를 못오게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당시 1956년도에는 목사들이 이 성경구절을 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고는 묵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 라고 성경 하계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3년반 동안 비를 못오게 하다가 다시 비를 오게도 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의 목사들의 해석은 이와같은 내용을 염두에 둔 해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묵시록 11장의 이 감람나무는 과거에 지나간 인물들의 기록이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스기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감람나무가 신약에 와서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재차 예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이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전 기독교인들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결국 주인공이 나타나서 감람나무에 대해 말씀을 던지시니 다들 당황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와서는 기독교계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1956년경의 기독교계는 예수 이외에 이와같은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상태였던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다. 당시 용문산에 본부를 두고 활약하던 라모 장로가 있었다. 초기에 영모님과 같이 집회를 한 사람이다. 영모님은 찬송인도하고 병을 고치셨고 라장로는 설교를 하였다. 얼마후 영모님은 그 라장로와 결별하였다. 왜냐하면 라장로는 악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라장로를 통해서는 방언신과 입신의 신을 받아 집회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와같은 방언과 입신의 신은 마귀의 신이라고 치면서 방언을 받고 입신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찰을 하시니 손닿는 곳마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까무러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예배를 보다가도 밑에서 방언이나 입신을 하는 교인이 있으면 단에서 뛰어 내려와서 안찰을 하곤 하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영모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을 인용하며 '방언신은 마귀신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쳐버리셨던 것이다. 그 성경구절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교회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마디 말을 하여 남을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으니라."(고전14:19) "내가 하나님의 신은 어지러운 일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려한 일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고전14:33)

여기 바울의 말은 '알아듣기 좋은 말 다섯마디 하는 것이 방언 일만마디 하는 것 보다 낫다면 그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또 '하나님은 어지러운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방언한다고 또 입신한다면서 교회전체를 미친놈 소굴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당시 그 정도수준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마귀신이라고 쫓겨서 알려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입신과 방언의 신 같은 마귀신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신을 받은 것으로 알게끔 만든 장본인이 된 것이다. 영모님은 이 방언과 입신같은 것을 그와 같이 쫓겨 말씀하면서 그때에 방언과 입신의 신이 마귀의 신이라고 강력하게 쳐서 교인들을 깨우치지 못한 바울의 책임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면서 바울을 나무랐던 것이다.

방언과 입신을 하는 교인들을 안찰을 하면 손 닿았던 곳에 애기 주먹만한 시퍼런 혹이 튀어 올라오면서 까무러치곤 하였다. 이것이 마귀의 신이 아니냐고 하면서 방언과 입신의 신을 강하게 쳐 버리셨다.

그 후부터 전도관에서는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신은 일질 발을 부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전도관과 승리제단에서는 이와 같은 마귀의 신이 근절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관과 승리제단을 제외한 전세계의 기독교 및 유사종교 단체에서는 지금도 방언과 입신의 신이 하나님의 신인 것 처럼 여기면서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설명이 결결로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여하튼 이와같은 일로 영모님은 용문산의 라장로와는 결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모님이 감람나무를 증거하시면서 기성교회가 감람나무로 인해서 곤욕

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라장로는 돌연 침묵을 깨고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한 것이다.

그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즉 "묵시록 11장에 보면 감람나무는 붉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게 되어 있는데 박장로는 마카오 신사양복을 입고 있으니 감람나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영모님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배옷입은 사람이 감람나무라면 서울 미아리 공동묘지에 가면 감람나무가 많겠구나"라고 맞받아 치시면서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상주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 흉내를 내면서 단상에서 연기를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은 일이 있었다. 정말 영모님의 존재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경이스럽고 기이한 존재였다. 그분 영모님은 감람나무인 주인공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감람나무를 잘 알고 또 정확하게 감람나무를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반박의 말을 할 수가 없었 다 병어리 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 二. 감람나무란?

#### 1)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

그렇다면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이신가?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였지만 감람나무에게서는 이슬같은 은혜가 나리고 또 향취가 진동한다. (호14:5~)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이 감람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이슬은 헤가 나리고 향취가 진동하는 박태선 영모님이 감람나무시구나'라고 짐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이 되니 박태선님에 대한 호칭을 그후부터는 감람나무를 불어 '감람나무 영모님'

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날에 주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골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는 빛이 없었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와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어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속 14:4-9)

그날에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감람나무로 출현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하였다. 이 성경구절을 보아도 감람나무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호칭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그 기쁨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여호와와 기쁨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 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라는 어원도 역시 '기쁨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제사장(출40:13-15)과 왕들에게 기쁨을 부어 주고 사명을 맡겼다. 사울왕(삼상10:1), 다윗왕(삼상16:3), 솔로몬왕(왕상1:39)등 이와 같이 기쁨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명칭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때에 머리에 부은 기름은 다 감람나무기름이었다. 참메시아에게 되어질 일을 그림자로 나타내어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참제사장이시고 참 왕중의 왕이시고 이기신 하나님이신 구세주를 상징하는 기쁨부음이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유일하신 이기신 하나님이신 구세주의에 는 받을 자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감람나무에게서는 금같은 기름이 흘러 넘친다(속4:12)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기쁨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분은 자체가 '금같은 기름'을 활활 넘치게 스스로 흘려내는 장본인이

시니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 감람나무는 이기신 하나님자체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이슬은혜의 본체이시고 자체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회복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전도관역사는 박태선님의 역사이고 박태선님의 역사는 조희성 구세주를 출현시키는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연재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인 당시에는 영모님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강하게 증거하시며 쇼를 하시던 때였다.

그래서 그때에는 감람나무를 '예수의 종'이라고 하며 당시의 예수의 종이라고 항상 표현하시던 때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구세주의 출현을 설명하다 보면 맨 끝에 가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충격적인 역사를 설명하게 된다. 또 앞에서 누누이 설명이 되었던 것같이 구세주는 한 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출현하여 한 분으로 합일되는 엄청난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사실 당시의 박태선 영모님은 당시의 예수의 종 감람나무라고 강하게 증거하셨다. 그러나 사실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대명사이며 더욱이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대명사인 것이다. 기독교 2000년사에서 전 기독교인들은 가짜 구세주인 예수에게만 매달려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경 속에 감추어 놓은 진짜 구세주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고 지나쳐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도성인신(道成人身)하여 구세주로 오시는 내용인 감람나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큰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다. 이 감람나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 도덕경 38장 해설

한 송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생명에 찬 꽃(生花)이 피어 있다. 그 꽃을 바라보는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 있는 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아마 본시 우리의 본성이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본성은 우리 인간의 근본 마음자리이며, 이것을 도(道)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는 덕(德)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어질고 착한 행실이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이 바로 덕인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의 개념인 것이다.

인간이 때 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눈으로 꽃 자체를 바라보면 마치 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자연스레 진선미(眞善美)의 순수본성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그 마음과 행실을 좇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를 멀리 떠나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치 조화(造化)라 할 수 있다. 조화는 순수성과 생동감이 사라져 있어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것은 인간의 일체 성정(性情)이 마치 조화처럼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세속에서 말

하는 도

### 도덕경 해설

덕과 인의예지가 흡사 이것을 닮아 있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지탱해 주는 조화와 같은 도덕과 인의예지, 이마저도 없다면 법과 제도로써 인간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지로 조화(造化)와 같은 세속적인 도덕과 인의예지의 기쁨을 세워주라든 인간의 성정, 삶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생각하면서 앞부분에 이은 그 뒤 문장으로 어렵지 않아서 따로 주석을 달지 않고 싶고자 한다.

失仁而後義(실인이후의): 인을 잃어서 뒤에 의가 따르고  
失義而後禮(실의이후례): 의를 잃어서 뒤에 예가 따른다

## 故去彼取此

고거피취차

### 고로 걸치장을 떠나 진실함을 취하는 것이다

그 숨은 의미를 깊이 헤아려 인간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큰 통찰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故失道而後德(고실도이후덕): 고로 도를 잃게 되고 뒤에 덕이 따르고

失德而後仁(실덕이후인): 덕을 잃어서 뒤에 인이 따르고

失仁而後義(실인이후의): 인을 잃어서 뒤에 의가 따르고

失義而後禮(실의이후례): 의를 잃어서 뒤에 예가 따른다

다.

夫禮者(부례자): 대저 예라고 하는 것은

忠信之薄 而亂之首(충신지박 이란지수): 어지러움이 두드러져 충성하고 믿는 마음이 얇

어진 것이다

前識者(전식자): 앞에 알려진 것은

道之華(도지화): 도가 걸치장되니

而愚之始(愚之始)

而愚之始(고거피취차): 고로 저것(걸치장)을 떠나 이것(진실함)을 취하는 것이다.\*

(이우지시):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是以大丈夫(시이대장부): 그러므로 대장부는

處其厚(처기후): 그 두터움에 있으며

不居其薄(불거기박): 그 얇팍함에 거하지 않는다

處其實(처기실): 그 진실함에 거하며

不居其華(불거기화): 그 걸치장된 것에 거하지 않는다.

故去彼取此(고거피취차): 고로 저것(걸치장)을 떠나 이것(진실함)을 취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b>승리신문</b>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